

# 여자대학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 간 관계에서의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효과\*

김지현(金知賢)\*\*

## 논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여성성역할),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여성성역할갈등)과 의사결정의존성, 진로결정과의 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성성역할은 주로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여성성역할갈등은 진로결정에는 부적 영향을, 의사결정의존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존성은 진로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모형에서 여성성역할은 의사결정의존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대안모형에서는 여성성역할이 의사결정의존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구조모형의 검증은 AMOS에 의해 이루어졌고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연구결과는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 간 관계에서 의사결정의존성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 등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다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 주요어 : 여성성,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 의사결정의존성, 진로결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로서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 대

\* 이 연구는 200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안을 탐색하는 시기이다(Super, 1957). 특히 대학생들은 이상적인 진로 기대에서 벗어나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 직업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에 매달리면서 충분한 진로 탐색을 하지 못하다가 대학생이 되어서야 진로 문제를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향자, 1993; Hwang, Kim, Ryu, & Heppner, 2006). 대학에 재학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진로 결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여성의 사회화와 환경에서의 진로장벽 때문이다(Lent, Brwon, & Hackett, 2002).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여대생 수의 증가에 비해 여성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부족하여 진로 결정에서의 어려움이 남성에 비해 더욱 크다(오치선, 이복희, 2005). 따라서 여대생의 진로발달에 대한 조력은 남자대학생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진로결정은 개인의 자아정체성 확보와 미래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rikson, 1968). 따라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들에 대해 상담자와 연구자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상담자와 연구자들은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원인에 대하여 탐색하였고 이 원인에 대한 차별적 진단과 이에 따른 차별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하여왔다(김봉환, 김계현, 1997). 연구자들은 진로발달과 선택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여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의존성이다. Harren(1979)은 의사결정유형을 합리성, 직관성, 의존성으로 나누었으며 그 중 의존성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타인의 의견이나 기대에 기초하려는 성향이라 개념화하였다. 의사결정유형은 진로성숙, 진로결정, 문제해결효능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남숙경, 이자영, 박희락, 김동현, 이미경, 이상민, 2008; Mau, 1995),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된 의존성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합리성이나 직관성보다 비교적 일관적이고 큰 설명량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hillips, Paziienza, & Walsh, 1984). 또한 해결해야 할 과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회적 영향력에 순응하려는 경향성이 커지기 때문에(Lucas, Alexander, Firestone, & Baltes, 2006), 진로결정이 개인의 미래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이라면 의존성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영향력에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관적이지 않으나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의사결정의존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u, 2000).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의 획득을 통한 개별적 자기 정체성의 획득이 주요한 발달 과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 분업 사회의 문화는 여성에게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지경, 김명소, 2003; 박영희, 1996; O'Brien, 1996). 그리고 여성은 문화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익숙하지 않다. (Mau, 2000). 이와 같은 여성 사회화는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의존성은 관계 지향적 혹은 집단 지향적 문화에서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서구 사회보다 집단 지향적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 여성이 여성성을 내면화할

때 의사결정의존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남성 중심적 입장에서 발달을 분리와 독립성의 획득 과정으로 여기는 전통적 심리학 이론(예: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여성의 성사회화를 주로 수동성 및 의존성과 연관시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군의 여성심리학자(Chodorow, 1978; Gilligan, 1982)들은 분리와 관계를 서로 독립된 가치로 평가하고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한 여성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 입장은 Bem(1974), Spence(1984) 등이 주장한 양성성 이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각 가치 있는 독립된 성향으로 파악하고 각 성향을 모두 소유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Bornstein, Bowers와 Bonner(1996)는 여성성이 의존성을 높인다는 기존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여성성이 의존성을 측정하는 객관적 검사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투사적 검사와는 무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면서 여성성이 의존성을 더 잘 인정하게 할 뿐 실제 의존성의 원인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여성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주로 남성성과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Whitley(1984)는 남성성, 여성성과 심리적 건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한 다수의 연구들을 검토한 후 주로 남성성이 긍정적인 심리 변인들을 설명하였고 여성성과 긍정적인 심리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지현, 황옥경과 최희철(2005)은 지금까지 성역할과 심리적 변인 간의 연구는 주로 심리 내적인 변인과의 관계에 치중되었고 대인 관계 차원에서의 심리적 변인을 간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여성성과 관계 만족과의 의미 있는 상관을 통해, 대인관계와 관련한 긍정적 심리 변인들을 고려하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다수의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이 과연 남성성과 여성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많은 연구들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기 위해 Bem(1974), Spence, Helmreich와 Stapp(1974) 등이 제안한 양성성 개념을 바탕으로 개발된 성역할 척도들을 사용하였는데, 이렇게 개념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주로 적응적 심리 변인과의 관계를 보였지만 우울 등 부적응적 심리 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만족스럽지 못하였다(Whitley, 1984). 그 이유는 Bem 등이 제안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이 성역할의 긍정성만을 고려할 뿐 부정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Gillespie와 Eisler(1992)는 성역할 사회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가 도전적 상황의 극복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런 측면이 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게 됨을 보였다(Efthim, Kenny, & Mahalik, 2001; Martz, Handley, & Eisler, 1995). 성역할과 관련한 전통적 믿음은 남성은 남성성을, 여성은 여성성을 내면화할 때 건강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도전한 양성성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내면화하고 표현

하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은 각각 바람직한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이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별하여 개념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려는 척도들이 제안되었고 이 척도들은 양성성 개념을 기초로 한 척도들과는 다른 구인을 측정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김지현, 2008; Gillespie & Eisler, 1992;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이처럼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으며 이 구인들이 각각 고유의 영역을 개념화하고 있음이 알려진 이후, 연구자들은 주로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활발히 탐색하여왔다.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남성성의 긍정적 측면이 긍정적 심리 변인을 주로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은 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 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 변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i.e. 김지현, 최희철, 2007; 최희철, 김지현, 2009). 이처럼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탐색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타당한 척도의 개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i.e. Gillespie & Eisler, 1992). 그러나 남성성 뿐 아니라 여성성에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생각을 수용한다면, 여성성 역시 다차원적으로 탐색될 때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과 그 영향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내면화한 성역할이 진로 흥미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Lent, Brown, & Hackett, 2002)은 개인특성 및 환경특성이 진로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성역할과 성격특성 등은 개인특성으로서 궁극적으로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성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이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처음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소수자 집단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Lent, Lopez, Lopez, & Sheu, 2008) 이 이론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여성의 사회화와 이로 인한 진로장벽이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왔다.(Hackett & Betz, 1981; Lent, et. al., 2005). Lindley(2005)는 여성의 경우 남성성에 비해 더 많은 진로장벽을 경험하며 이렇게 경험된 진로장벽은 진로결과기대와 진로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황매향 등(2005)은 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갈등 및 성차별이 여성 진로장벽의 요인 중 하나로서 여성의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으며, 유성경 등(2007)은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이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결과들은 여성성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다양한 성격특성들이 개인의 진로 성숙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들은 성격특성 중 하나인 의존성이 높아질 때 진로성숙에 부정적임을 보여 왔다(장재태, 양재석, 2001; 양진희, 김봉환, 2008; Mau, 2000; Phillips, Paziienza, & Walsh, 1984). Tokar 등(2007)은 성역할 관련 변인이 성격특성과 관계를 보이며 진로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역할과 진로 및 의존성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여성성이 진로결정을 밀접하게 설명하는 진로효능감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정진선, 2001; Rotberg, Brown, & Ware, 1987), 의존성과의 관계에서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Bornstein, Bowers & Bonner, 1996)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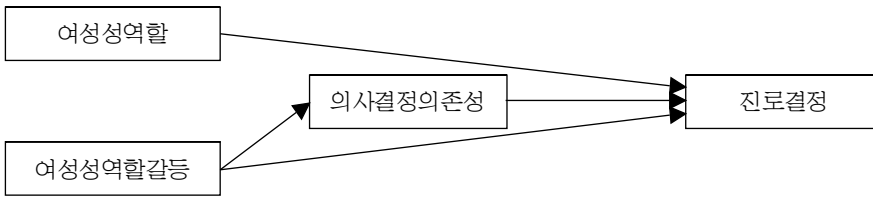
성역할과 의존성 및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이 중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흔치 않으며 특히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또한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을 연구 대상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이 발현되는 원인 중 하나는 생물학적 성에 의해 부여되는 성역할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압력이라고 믿어지고 있다(Pleck, 1995). 그리고 여성성의 핵심적 요소인 관계성의 정도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지만 관계성의 내용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되었다(김지경, 김명소, 2003). 이를 고려할 때 특정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변인으로 포함하는 연구는 해당되는 생물학적 성을 중심으로 우선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여성성역할), 부정적 측면(여성성역할갈등), 의사결정의존성, 진로결정 간의 관계 모형을 제시,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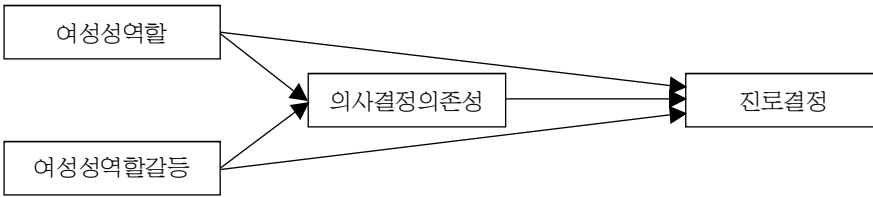
## 2. 연구모형

여성성역할은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 여성성역할갈등은 부정적 측면으로 개념화하고 의사결정의존성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남성성과 관련한 선행연구(김지현, 최희철, 2007)를 바탕으로, 여성성역할은 주로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여성성역할갈등은 진로결정에는 부적 영향을, 의사결정의존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의사결정의존성은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으며 의사결정의존성은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한편 여성성역할과 부정적 심리 변인간의 관계가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모형(그림2)에서는 여성성역할과 의사결정의존성 간

의 관계가 유의할 가능성을 포함시켰다.



[그림1] 연구모형



[그림2] 대안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수도권의 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386명의 자료가 이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교육학, 심리학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여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을 전후하여 연령 등 인구학적 변인 및 연구 변인이 포함된 질문지가 배포되었고, 이들은 연구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만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19(SD: 1.99)세였으며 평균 학년은 2.63(SD: .92)이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가 78%, 자연계가 17.6%, 그리고 예능계가 4.4%로 인문사회계 전공자가 많았다.

### 2. 연구도구

#### 1) 한국성역할검사

여성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검사(KSRI)의 여성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진경은 Bem(1974)의 성역할 검사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 각각

20개씩 총 60문항으로 성역할 검사를 구성하였다.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 성별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긍정적 기술로, 긍정성 문항은 성에 관계없이 바람직한 기술들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검사의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김지현, 2008;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각 문항은 해당 기술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식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성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개발자에 의하면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4이었다. 구조방정식에서는 20개의 문항에 대해 5문항씩의 묶음 점수(parceling)를 구하여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 2) 여성성역할갈등척도

여성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17개 문항으로 구성된 김지현(2008)의 여성성역할갈등척도를 사용하였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의 개발자는 이 척도가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이 척도가 측정한 변인이 여성의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 척도는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성적 희생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의존성, 지나친 수동성 등 4개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Likert 식 6점 척도로 만들어졌다. 이 중 의존성 요인은 이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인 의사결정의존성을 직접 기술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정도를 탐색하고 있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수가 클수록 성역할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여성성역할갈등척도에서 전체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76, 각 요인의 Cronbach  $\alpha$ 는 .62~.73 사이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각 요인이 잠재변인을 반영하는 측정변인으로 사용되었다.

## 3) 의사결정유형검사

의사결정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향자(1993)가 변안한 Harren(1984)의 의사결정유형검사(Harren, 1984) 중 의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존성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 문항은 예/아니오 중 선택하게 되어 있으나 고향자는 이를 4점 Likert 식 척도로 변환하였다. 고향자에 의하면 의존성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84였다. 높은 점수일 수록 의사결정의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개의 부분 점수로 묶음 점수를 구하여 각각을 잠재변인을 반영하는 측정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 4) 진로결정검사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향자(1993)가 번안한 진로결정검사(Osipow, Carney, & Barak, 197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두 문항은 진로확신의 정도를 측정하고, 다음 16 문항은 진로미결정의 이유를 반영하고 있으며, 마지막 한 문항은 자유반응형으로 되어있다. Shimizu 등(1988)은 요인 분석을 통해 3개 문항을 제외한 진로미결정 13개 문항을 4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김지현(2006)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이 제안한 4개 요인 구조가 한국대학생을 대상으로도 타당함을 보였다. 4개 요인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 )는 .47~.74 로 충분히 양호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일부 요인의 문항 수가 적어 기대보다 낮은 내적 일치도를 얻을 가능성이 높음이 지적되었다. 문항-요인총점 상관이 충분히 양호하였으므로 각 문항이 해당 요인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본 연구에서는 Shimizu 등(1988)이 제안한 4요인과 함께 첫 두 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하여 5개의 측정요인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이란 잠재변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통계분석

각 변인 간 단순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구조모형의 검증은 AMOS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CFI, TLS, RMSEA 등이 적합도 지수로 활용되었다.

## III. 결과

### 1. 변인 간 단순상관

이 연구에서 사용된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 의사결정의존성, 진로결정의 문항점수 총점 간의 단순상관계수 및 변인 총점의 평균, 표준편차가 표1에 제시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여성성역할은 진로결정과의 정적 상관을, 여성성역할 갈등은 의사결정의존성과는 정적상관을, 진로결정과는 부적 상관을, 그리고 의사결정의존성은 진로결정과 부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항 총점에 의한 각 변인 간 단순 상관은 대체로 이 같은 가설을 지지하고 있으나 여성성역할과 진로결정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 의사결정의존성, 진로결정의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         | 여성성역할  | 여성성역할갈등 | 의사결정의존성 | 진로결정  |
|---------|--------|---------|---------|-------|
| 여성성역할갈등 | .238** |         |         |       |
| 의사결정의존성 | .134** | .255**  |         |       |
| 진로결정    | .017   | -.238** | -.329** |       |
| 평균      | 92.49  | 72.52   | 33.45   | 34.48 |
| 표준편차    | 14.89  | 11.13   | 7.93    | 7.69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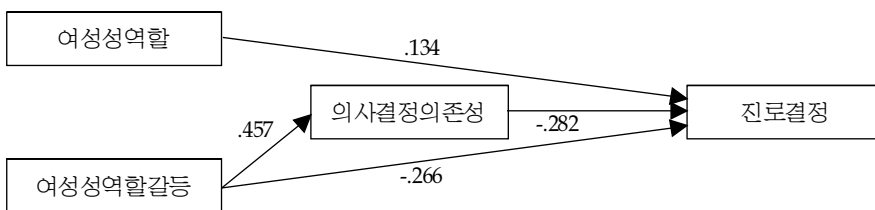
## 2. 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제안된 구조 모형에 대한 적합도 평가는 홍세희(2001)와 Hair 등(2006)이 제안한 기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홍세희는 모형의 CFI와 TLI가 .90 이상, RMSEA는 .05이하를 좋은 적합도의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Hair 등(2006)은 사례수와 측정변인의 수를 고려한 적합도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사례수가 250 이상, 측정변인의 수가 12~30개 사이일 때 CFI와 TLI는 .92 이상, RMSEA는 .07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여겼다.

연구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모형이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CFI=.932, TLI=.916, RMSEA=.066)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각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표준화 회기 계수는 .35 이상(p<.001; 1로 고정된 요인계수는 제외)으로 잠재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었다.

연구자료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CFI=.922, TLI=.907, RMSEA=.070) 역시 홍세희(2001)와 Hair 등(2006)의 기준을 고려할 때 수용할 만하였다. 모형에서 제안된 잠재변인 간 표준화 경로 계수는 그림3에 기술되어있으며 모두 유의하였다(p<.001).

한편 연구모형에서 제외되었던 여성성역할의 의사결정의존성에 대한 경로를 포함시킨 대안 모형의 적합도(CFI=.923, TLI=.906, RMSEA=.070)는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유사하였다. 연구모형은 대안모형에 내재되기 때문에 두 모형 간  $\chi^2$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chi^2$  difference는 1.736 (289.229-287.493)으로 유의도 .05(df=1, N=386)에서 유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간명한 연구모형이 선택되었다.



[그림 3] 선택모형

&lt;표 2&gt; 모형 적합도

|         | $\chi^2$  | 모형비교   | $\Delta \chi^2$ (df) | CFI  | TLI  | RMSEA(90% CI)   |
|---------|-----------|--------|----------------------|------|------|-----------------|
| 1. 측정모형 | 264.04*** |        |                      | .932 | .916 | .066(.057~.076) |
| 2. 연구모형 | 289.23*** |        |                      | .922 | .907 | .070(.061~.080) |
| 3. 대안모형 | 287.49*** | 2 vs 3 | 1.74(1)              | .923 | .906 | .070(.061~.080) |

N=386, \*\*\*p&lt;.001

### 3. 매개효과의 크기

매개효과의 크기는 독립변인의 매개변인에 대한 경로계수와 매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경로계수의 곱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는 여성성역할갈등의 진로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효과가  $-.129(.457 \times -.282)$ 로 나타났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이 연구의 표집에서 1000번의 무선표집을 통한 bootstrap 분석을 하였다(Shrout & Bolger, 2002). 1000개의 무선표집으로부터 얻은 매개효과의 추정치로부터 구한 95% 신뢰구간은  $-.207 \sim -.066$  였다. 이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이 연구에서 여성성역할갈등의 진로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의존성의 매개효과는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이 연구에서는 성역할, 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이론들을 바탕으로 여성성을 긍정적 측면(여성성역할)과 부정적측면(여성성역할갈등)으로 구분하고 각 측면과 의사결정의존성, 진로결정과 관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모형은 여성성역할이 주로 진로결정에 정적 영향을, 여성성역할갈등은 진로결정에는 부적 영향, 의사결정의존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존성은 진로결정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긍정적 측면의 성역할과 부적응적 심리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던 여성성역할의 의사결정의존성에 대한 경로를 포함한 대안모형을 구성하고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이 간명하게 본 연구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과 관련한 본 연구의 가정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변인 간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인 여성성역할은 진로결정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의사결정의존성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여성성역할이 다른 심리적 변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사용된 심리적 변인에 따라 혹은 표집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Whitley, 1984). 앞으로의 연구에서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다양한 심리적 변인 간의 관계가 서로 다른 특성의 표집에 따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더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인 여성성역할갈등은 의사결정의존성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진로결정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진로성숙과 관련하여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였지만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렇지 못하였다(김지현, 2008). 여성성역할갈등이란 측면을 심리적 변인들과 여성성과의 관계 연구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연구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의사결정의존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결정유형이 진로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한 합리성이나 직관성보다 의존성이 진로성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Mau, 1995; Phillips, Paziienza, & Walshi, 1984)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문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Mau, 2000)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의존성이 여성에게 의미 있는 진로장벽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의사결정의존성은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과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여성성역할갈등은 진로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의사결정의존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간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의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여성성역할과 진로결정 간의 관계가 단순 상관계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여성성역할갈등 및 의사결정의존성이 모형에 포함되었을 때 여성성역할의 진로결정에 대한 관계가 유의하게 되었다. 이는 여성성역할의 진로결정에 대한 관계에서 여성성역할갈등 혹은 의사결정의존성이 억압 변인(suppressor variable)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인과 관련하여 두 독립변인의 회귀 계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두 독립변인은 상호 억압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Tabachnick & Fidell, 2001), 일반적으로 다른 심리변인들과의 상관 계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일 가능성이 큰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상호 억압변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을 함께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들의 성역할 및 진로 등 관련 연구분야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결

과는 여성성을 진로성숙 등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Bem(1974) 등에 의해 양성성 모델이 제시된 이후 남성성 집단과 양성성 집단이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없음이 밝혀지고 주로 긍정적 측면의 여성성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자 일부 연구자들(Taylor & Hall, 1982; Whitley, 1984)은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에 더 주목하였다. 그러나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리하였을 때 각 측면이 심리적 적응 변인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여성성이 심리적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으로부터 부정적 측면을 분리하고 이를 함께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심리적 적응에 대한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의 설명력이 잘 드러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별하여 개념화할 필요성과 함께 가능한 한 이 개념들을 동시에 포함시켜 연구할 때 여성성의 심리적 적응 변인에 대한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결정에 대한 여성성역할과 여성성역할갈등의 관계를 통해 여성의 성사회화가 진로성숙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모두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여성의 성사회화를 주로 진로장벽이란 개념과 관련시키는 관점들이 적지 않으나(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여성성의 내면화가 진로 성숙과 관련하여 보호요인 혹은 촉진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진로성숙과 관련한 여성성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 실제에서도 이 연구의 결과들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진로 발달 및 심리적 적응을 촉진시키려는 상담에서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란 개념을 활용하고 특히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이 심리적 적응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면화한 여성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연구는 여성 내담자가 내면화한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의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상담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빠른 진로결정이 필요한 여성 내담자의 경우 생의 초기부터 형성되어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여성성역할갈등을 먼저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여성성역할갈등과 진로결정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의사결정의존성을 먼저 다루어줌으로써 여성성의 부정적 측면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표집은 수도권의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과 연령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어있으나 대도시 및 근교지역과 지방 소도시 및 읍면 지역 간 전통적 여성성의 내면화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연령 간 여성성의 내면화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및 연령에 대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는 연구모형을 남성 표집에게 적용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남성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양성성 개념(Bem, 1974)을 통해 남

녀 모두에게 남성성과 여성성의 긍정적 측면의 역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라 남성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개념이 여성에게도 적용된 연구가 이루어졌다(i.e. 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남성에게도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특성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요구가 남성에게도 여성과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남성성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반영한 변인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상대성의 전통적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기를 요구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변인이 함께 포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재태, 양재석 (2001). 고등학생들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유형 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20, 51-65.
- 고향자 (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9, 311-333.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 41-59.
- 김지현 (2006). 한국 남녀 대학생 집단에 대한 진로결정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상담학연구, 7, 1153-1167.
- 김지현 (2008). 여성성역할갈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여자대학생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9, 1-22.
-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145-160.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 621-632.
- 남숙경, 이자영, 박희락, 김동현, 이미경, 이상민 (2008).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역할. 한국교육학연구, 14, 205-223.
- 박영희 (1996). 여자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 47-65.
- 양진희, 김봉환 (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 57-72.
- 오치선, 이복희 (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 93-113.
- 유성경, 이항심, 황매향, 홍세희. (2007). 학업우수여학생의 부모애착, 성역할정체감, 자아존중감 및 진로장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 357-380.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 정진선 (2001).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희철, 김지현 (2009). 남자청소년의 성역할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 한국청소년연구, 20, 253-280.
-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 연구*, 6, 1205-1223.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ornstein, R. F., Bowers, S., & Bonner, S. (1996). Relationships of objective and projective dependency scores to sex role orientation in college student participa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555-568.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fthim, P. W., Kenny, M. E., & Mahalik, J. R. (2001). Gender role stress in relation to shame, guilt, and extern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9, 430-43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Gillespie, B. L. & Eisler, R. M. (1992). Development of the Feminine Gender Role Scale. *Behavior Modification*, 16, 426-43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ckett,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6.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NJ: Pearson Education.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rren, V. H. (1984).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Hwang, M., Kim, J., Ryu, J., & Heppner, M. J. (2006). The circumscription process of career aspirations in South Korean adolesc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7, 133-143.
- Lent, R. W., Brown, S. D., Sheu, H., Schmidt, J., Brenner, B. R., Gloster, C. S., et. al. (2005). Social cognitive predictors of academic interests and goals in engineering: Utility for women and students at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84-92.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55-311). San Francisco: Jossey-Bass.
- Lent, R. W., Lopez, A. M., Lopez, F. G., & Sheu, H.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the prediction of interests and choice goals in the computing disciplin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 52-62.
- Lindley, L. d. (2005). Perceived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 271-187.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J., Baltes, B. B., (2006). Self-efficacy and independence from social influence: Discovery of an efficacy-difficulty effect. *Social Influence, 1*, 58-80.
- Martz, D. M., Handley, K. B., & Eisler, R. M.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feminine gender role stress, body image, and eating disord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493-585.
- Mau, W. (1995). Decision-making styles as a predictor of career decision status and treatment gai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90-101.
- Mau, W. (2000). Cultural differ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and self 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65-378.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O'Neil, J. M., Heml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233-243.
- Phillips, S. D., Paziienza, N. J., & Walsh, D. J. (1984). Decision making styles and progress in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5*, 96-105.
- Pleck, J.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Y: Basic Books.
- Rotberg, H. L., Brown, D, & Ware, W. B. (1987). Career self efficacy expectations and perceived range of career options in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64-170.



- Shmizu, K., Vondracek, F. W., Schulenberg, J. E., & Hostetler, M. (198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Similarities across selected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213-225.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es, Vol. 7*, 422-445.
- Spence, J. T. (1984). Gender identity and its implication for the concept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T. B. Sonderegger(Ed.), *Nebraska symposium of motivation: v.32, Gender issues in psychology* (pp. 59-9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Spence, J. T., Helmreich, R. L. , & Stapp, J. (1974).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A measure of sex role stereotypes and masculinity-femininit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43*, Ms. no. 617.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Y.: Harper & Row.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MA: Allyn & Bacon.
- Taylor, S. E., & Hall, J. A. (1982). Psychological androgyny: Theories, methods, and conclusions. *Pyshcological Bulletin, 92*, 347-366.
- Tokar, D. M., Thompson, M, N., Plaufcan, M. R., & Williams, C. M. (2007). Precursors of learning experiences in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19-339.
- Whitley, B. E. (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 (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33-338.

\* 논문접수 2009년 8월 1일 / 1차 심사 2009년 8월 21일 / 2차 심사 2009년 9월 10일 / 게재승인 2009년 9월 21일

\* 김지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미국 코네티컷주립대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 e-mail: mongsanga@hongik.ac.kr

## **Feminie Gender Roles, Feminine Gender Role Conflicts, Decision-Making-Dependency and Career Decision in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Kim, Ji Hyeo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positive aspects (feminine gender roles: FGR) and negative aspects (feminine gender role conflicts: FGRC) of femininity to decision-making-dependency(DMD) and career decision(CD) in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Based on related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research model suggested that FGR have an effect directly on CD and that DMD mediate partially the relation of FGRC and CD. Alternative structural model hypothesized that DMD mediate partially the relation of FGR and CD. Research model was selected with the fit index of SEM using AMOS. This result suggested that positive aspects and negative aspects of femininity should be included simultaneously in the study to examine the effects of femininity on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such as career decision.

Key words: femininity, feminine gender roles, feminine gender role conflicts, dependency, career decision

---

\* Hongik University